

김은모 이미숙 선교사의 캄보디아 소식

코로나 청정국이라 불리던 캄보디아도 결국은 코로나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0명에 육박하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락다운을 발령할 만큼 철저히 통제를 하고 통금 명령까지 내렸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시위까지 하자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소극적인 통제밖에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던 한인 사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한인 3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위기를 넘기고자 안식년을 활용하여 한국으로 돌아갔거나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 정부가 외국인들에게도 백신을 무료로 접종해주고 관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소중하게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 이전의 생활이 얼마나 자유롭고 아름다웠으며 감사했던가 생각해봅니다. 다시 그 시절처럼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염려도 되지만 코로나 덕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를 느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정화되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입은 은혜를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다짐하고 소망합니다.

1. 가족 소식

1) 시영이의 검정고시, 그리고 한국 정착

- 큰 아들 시영이가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으로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시험준비를 잘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을 보았는데 전체 7과목 평균 95점으로 무난히 통과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대부분의 성장기를 보냈기 때문에 처음 한국 정착하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버스 타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개통, 통장 개설, 각종 인증하는 법 등 한국에서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데리고 다니며 사소한 것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처음에는 자신 없어 하던 시영이가 겨우 일주일여 만에 스스로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아이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선교사



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혼자 한국에 두고 캄보디아로 돌아오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가족이 잘 도와주시겠지만 시영이가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시아의 시노백 백신접종



캄보디아에서도 성인들의 접종이 먼저 진행되었고 8월부터 청소년들의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12세부터 17세까지 접종을 하는데 시아가 만으로 15살이어서 접종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시설 좋은 병원에서 100불에 모더나를 맞을 것인지,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하는 시노백을 맞을 것인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 선교사님들과 같이 시노백 접종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확인받고 보건소에 가서 접종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무섭다고 하던 시아가 전혀 안아프다며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접종도 한만큼 코로나가 급증하는 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2. 사역 소식

1) 계속되는 소그룹별 예배



2월 말부터 급증한 코로나로 인해 모든 모임이 금지되어 또다시 소그룹별로 주

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몇 차례 SNS를 통해 가족별, 소그룹별로 예배를 드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큰 어려움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전도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지시를 잘 따라 주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참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2) 가정심방과 선물배부



-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이기기 격려 물품을 전달하였습니다. 한국의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서 마스크, 클렌징, 손세정제, 속옷, 생리대, 잠옷, 장난감, 사탕 등을 준비해 가정마다 심방하여 나누어주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모일 수

도 없고 지방을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만나지 못했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각 가정을 심방하게 되어 만나고 나니 너무 반갑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그들의 삶과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을 격려하였습니다.

3) 장학금 및 노트북 전달



샘소슬 그루터기 선교회에서 중고 노트북 두 대를 후원해주셨습니다. 한 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스라이벳 자매에게 다음 학기 장학금과 함께 전달해 주었고 또 한 대는 스라엡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티어라 전도사님에게 주었습니다. 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쓸만해서 두 명 모두 매우 좋아했습니다. KPOP을 좋아하는 스라이벳

자매는 벌써 노트북에 K-POP스타들의 스티커를 잔뜩 붙여놓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노트북을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잘 마쳐서 무사히 졸업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티어라 전도사님도 사역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노트북을 후원해주신 샘소슬 그루터기 선교회에 감사드립니다.

4) 유스웨 전도사님 아버지의 장례

캄보디아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교회 빠삐 자매와 약혼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교회의 전도사님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유스웨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지방에서 세 개의 교회를 담임하면서 거의 30년간 목회자

의 삶을 사시다가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반복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워낙 신앙심이 좋아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고통 없는 곳에 계시다고 믿으며 오히려 조문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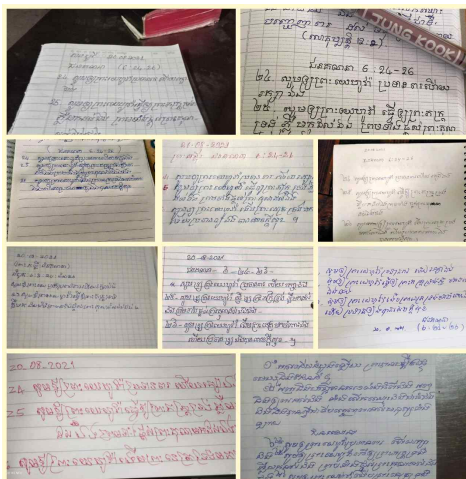
5) 배우 성도 장례식



기도제목을 통해 지난 1년 간 중보기도를 요청 드렸던 배우 성도가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성도는 신장병을 앓으며 투석을 받으면서도 늘 밝은 모습이었고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열심이었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을 모두 예수님게로 인도했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분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망원인은 신장병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고 심장마비로 사망한 듯

합니다. 사후 코로나 검사에서는 음성이 확인되어서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어린 두 딸과 젊은 아내가 남겨지게 되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오열했는데 저도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를 도와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장례를 위해 수고한 유테로앗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감사드리고 먼 곳까지 찾아와준 트널떠똥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품에서 고통 없이 행복하게 지내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매일 성경쓰기 시작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건강히 지키기 위한 기타 활동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얼굴을 못 보니 뭔가 사역에 건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은혜로운 성경 한 구절씩 메신저로 보내 주면 하루 일과중 여윌 시간에 같은 성경구절을 노트에 써서 단체 메신저방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 됩니다.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의 건조함도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7) 캄보디아어 찬양 유튜브 개설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 되면서 활동이 적어지게 되고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저에게 있는 찬양의 은사와 캄보디아 언어의 은사를 사용하는 유튜브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6곡의 캄보디아어 찬양과 가사를 통한 언어공부를 주제로 하는 콘텐츠로 제작하였습니다.

니다. 찬양으로 캄보디아 크리스찬들과 소통하고 언어공부로 선교사님들과 소통하는 채널인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중요하게 된 다양한 미디어 사역을 캄보디아에서 시작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youtu.be/WAybBJVqHCY>

3. 기도제목

1) 캄보디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직장을 잃은 성도들을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한국의 경제 상황도 많이 좋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후원금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더불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숙 선교사는 시영이의 뒷바라지 겸 한국에 나가 있는데 한국과 캄보디아 두 군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시영이도 시험을 잘 통과하여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리고 저와 시아는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데 의료시설이 열악한 만큼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3) 브레이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브레이미은 교회는 20여 년 간 여러 현지 목회자가 맡아왔지만 이렇다 할 결실이 없어서 참 사역하기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여러 해 지원했지만 스스로 해 보겠다는 현지 목회자의 의견을 존중해 수년 동안 교류가 없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는지 결국 교단의 요청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저희 교회가 브레이미은 교회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브레이미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현지연락처 +855-10-81-2016 / dmsah33@naver.com / 카톡ID 0979932061

개인후원계좌 : 하나은행 321-890428-34507 김은모

정기후원문의 : 사단법인 CEAI 최수근 목사님 010-8021-9001 (연말정산가능)

사역 블로그 주소 <http://blog.naver.com/dmsah33>